

베트남 정보통신 산업현황

목 차

I. 베트남 정보통신 현황

1. 정보통신 주무부처
2. IT 정책
3. 주요 정보화 지표

II. 베트남 정보통신 산업 현황

1. 베트남 투자환경 분석
2. 분야별 통신 산업 현황
3. 분야별 주요 통신 사업자

III.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 현황

1. IT 시장 규모
2.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3.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4. 하드웨어 산업 현황

IV. IT 분야 협력 현황

1. IT 분야 협력 현황
2. 정부 간 협력
3. 국내 IT 기업 진출 현황

V. IT 동향

VI. 일반 현황

1. 국가개요
2. 경제지표
3. 양국 간 협력 관계

I. 베트남 정보통신 현황

1 | 정보통신 주관부처 및 기관

□ 국가정보통신운영위원회(NCICT)

- 2002년 12월 3일에 설립된 국가정보통신운영위원회는 베트남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함
- NCICT 위원장은 부총리가 담당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장은 우정통신부 장관이 담당
- NCICT의 주요 역할은 베트남 정보통신 개발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통신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수행을 담당
 - 이밖에도 정보통신 개발과제의 구체적 실행과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를 관할

□ 우정통신부(MPT: Ministry of Posts And Telematics)

- 우편 및 통신부문 정책 입안 및 규제업무 총괄
- 2002년 11월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DGPT)를 확대 개편하여 설립
 - 2002년 말까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하드웨어 산

업을 담당했으나, 2003년부터 두 기능을 통합하여 우정통신부(MPT)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

- 우편국, 통신국, 정보기술국, 과학기술국, 기획예산국, 국제협력국, 법규담당국, 기구 및 인력담당국, 조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과 IT 인재 육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표준화 등은 여전히 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음

□ Posts and Telematics Quality Control Directorate

- 통신기기 및 가전기기에 대한 표준·인증 관련 업무 및 제품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며, 각 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후 감독 및 관리 담당

□ 베트남 산업개발 전략(2006-2010)

- 베트남 수장은 높은 경제성장률의 유지 및 GDP에서의 공업부문 비중 증가를 위하여 2006년 4월 '2006-2010 베트남 5개년 산업개발 전략'을 승인
 - 同 전략은 국내 산업개발을 위한 주요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베트남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해당지역에 적합한 산업 및 개발 목표를 설정함
- 同 전략은 베트남 연간성장률 15~16% 및 건설 및 공업부문 비중 '06-'10년 43~44%, 2020년까지 45% 달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 산업 수출의 85~9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

- o 특히 전자 및 IT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 (22~23%)을 보이는 관계로, 전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5년 3.0%에서 2010년에는 6.5~6.7%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

[2006~2010년 베트남 분야별 성장률 및 비중 전망]

분야별 산업	성장률 2006-2010(%)	비중(%)	
		2005	2010
총 분야	15.0 ~ 16.0	100.0	100.0
자원개발 산업	5.5 ~ 6.5	10.5	6.0 ~ 7.0
기간 산업	18.5 ~ 19.5	29.1	38.0 ~ 39.0
기계 산업	19.2 ~ 20.2	13.0	16.0 ~ 17.0
금속 제련 산업	18.0 ~ 19.0	3.4	4.0 ~ 5.0
전자 및 IT 산업	22.0 ~ 23.0	3.0	6.5 ~ 6.7
화학	16.5 ~ 17.5	9.0	11.0 ~ 12.0
농림수산물 가공	12.5 ~ 13.5	30.0	25.5 ~ 26.5
섬유, 봉제, 가죽 및 신발	14.5 ~ 15.5	12.7	13.0 ~ 14.0
건축 자재 생산	13.5 ~ 14.5	9.8	8.0 ~ 9.0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	14.0 ~ 15.0	6.2	5.5 ~ 6.0
기타 산업	12.0 ~ 13.0	1.3	1.0 ~ 1.5

[6개 지역별 산업개발 목표]

구분	지역	주요 산업 부문	개발 목표
지역 1	북부산악지역 14개 성 : - Bac Kan, Bac Giang, Cao Bang, Dien Bien, Hoa Binh, Ha Giang, Lai Chau, Lang Son, Lao Cai, Phu Tho, Son La, Thai Nguyen, Tuyen Quang, Yen Bai	- 수력 발전소 - 농임가공(종이,차,원목,식료품,야채) - 자원개발산업: 철광석,인회석,석탄,구리, 납,이연,주석,olfram - 화학, 비료 - 금속제련, 건축자재 생산	- GDP 비중 : 23~24% - 연간성장률 : 14.5%~15.5%
지역 2	홍하델타 및 북부 중심지역 15개 성 : - Bac Ninh, Ha Noi, Ha Tay, Hai Duong, Hai Phong, Ha Nam, Hung Yen, Nam Dinh, Ninh Binh, Nghe An, Quang Ninh, Thai Binh, Thanh Hoa, Vinh Phuc	- 기계공학(조선,기기,전기장비 운송수단) - 화력 발전소 - 자원 개발 산업 - 건축 자재 생산 - 섬유 봉제 신발	- GDP 비중 : 46~47% - 연간성장률 : 14.5~15.5%
지역 3	해안지역 10개 성 : - Binh Dinh, Da Nang, Khanh Hoa, Ninh Thuan, Phu Yen, Quang Binh, Quang Nam, Quang Ngai, Quang Tri, Thua Thien -Hue	- 농림수산물 가공 - 정유 공장 및 석유화학 - 조선, 기계공학, 건축자재 생산 - 섬유 봉제 신발 - 전자 및 IT	- GDP 비중 : 46~47% - 연간성장률 : 15.5~16.5%
지역 4	고원지대 4개 성 : - Daklak, Dak Nong, Gia Lai, Kon Tum	- 수력 발전소 - 농산물가공(커피,천연고무,종이,설탕 등) - 광물개발 및 가공(보크사이트)	- GDP 비중 : 13~14% - 연간성장률 : 17.8~18.7%

지역 5	동,남부 지역 8개 성 : - Ba Ria-Vung Tau, Binh Duong, Binh Phuoc, Binh Thuan, Dong Nai, Lam Dong, Hochiminh city, Tay Ninh	- 석유 가스 개발 - 전기 - 농림수산물 가공 - 기계 공학 - 전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 - 화학 제약 - 섬유 봉제,신발	- GDP 비중 : 51%~52% - 연간성장률 : 13.2%~14.2%
지역 6	메콩델타 지역 13개 성 : - An Gian, Bac Lieu, Ben Tre, Can Tho, Dong Thap, Hau Giang, Kien Giang, Long An, Ca Mau, Soc Trang, Tien Giang, Tra Vinh, Vinh Long	- 수출용 농수산물 가공 - 농업 기계공학, 특히 농수산물 가공 기기 - 조선	- GDP 비중 : 26~27% - 연간성장률 : 14.4~15.4%

□ 베트남 2020 ICT 전략

○ 베트남정부는 지식기반 및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ICT를 주요 동인으로 하는 사회·경제 구조개혁 비전을 제시

- 2002년에서 2010년까지 ICT분야에 40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요 투자 대상은 통신분야 인프라 구축, ICT 인력양성,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등임

- 유선전화의 인구 100명당 보급률을 32~35%로 끌어올리고 이동전화 보급률을 18~20%, PC 보급률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인터넷 활용인구도 전 국민의 50% 수준으로 확대. 이 중 브로드밴드 사용자는 30% 수준까지 높인다는 전략

○ 2010년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전자상거래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70%의 기업이 B2B 형태의 거래를 하며, 30%의 정부부처가 물품구매를 온라인으로 수행, 15%의 가구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2020년까지의 ICT 비전 달성을 위한 ICT 459 전략 추진

< ICT 459 전략 >

4대 우선 프로젝트	5대 이행 프로그램	9대 솔루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itizen 개발 기반 설립 • E-Government 개발 기반 설립 • 정보·지식 접근 개발 역량 구축 • 국가 ICT 통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 • 인프라 • 산업화 • 인력양성 • 환경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 : 인식, 시행, 조정 • 자원 확보 : 재정, 인력, R&D • 환경 조성 : 규제, 파트너십 및 공동사업, 시장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계획

- 1990년 말 베트남에서 IT 인력을 양성하던 기관은 7개 대학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대학, 전문학교, 민간교육기관 등을 합하여 총 100여 개 이상의 기관으로 늘어남
- 이 밖에도 외국계 IT 교육센터도 설립추세에 있어 향후 베트남 IT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IT 인력 양성기관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
-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IT 전문 인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베트남정부는 IT 관련 고급인력 양성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
- 베트남의 Nguyen Tann Dung 수상은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 각 부처 및 저부 관력 기관에 요청
- 베트남 근로자의 약 50% 가량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는 저소득층으로 최저 생계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

는데,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됨

-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급 IT 인력 육성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최근 인건비 상승추세와 맞물려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됨

□ 전자정부 구축

- 2001년 말 베트남 정부는 ‘정부행정관리전산화 2001~2005(State Administrative Management Computerization, Period 2001~2005)’ 계획을 승인하고 내각 산하에 집행위원회112(Board 112)를 설립하여 전자정부 계획을 추진함
- 베트남의 전자정부 개발은 다음의 3가지 과제에 집중
 - 첫째, 정부행정의 전산화로, 이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각 정부 부처에 보급하고 공무원에게 IT 훈련을 시킴으로써 가능
 - 둘째, 정부 웹사이트 구축
 - 셋째, 관세, 금융, 조세 등의 전자정부 시범사업의 추진

구분		보급률	비고
유선통신 회선 수	930만 회선	10.9%	2006.12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1,898만 명	22.3%	2006.12월 기준
PC 보급률	323만 대	3.8%	2006.12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	1,468만 명	17.64%	2006.12월 기준

※ 보급률 : 인구 100명당 보급 기준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Economist Intelligence Unit 6/12자 보고서)

II. 베트남 통신시장 현황 - 통신 시장 개요

□ 베트남 투자환경 분석

- 베트남은 향후 수 년 동안 수출호조 및 해외투자 유치에 힘입어 8.5~8.7% 수준의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 해외 주요 IT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발표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
- 정보통신 산업부문의 경우, 영국의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이 베트남 투자를 결정했고, 미국의 인텔社도 10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결정을 발표함

- 베트남 정치권에서도 고무적인 추세가 목격되고 있는데, 지난 5월 20일 총선에서 당선된 493명의 의원들 가운데 345명이 초선 의원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각종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 개선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
- 베트남 정부는 또한 3G 모바일 기술 및 WiMAX 솔루션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5천만에 육박하는 베트남의 피라미드식 인구 구조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의 성공을 예측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 인구는 또한 향후 20~30년간 베트남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거시 경제 현황 및 전망]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GDP (US\$bn)	43.9	52.7	60.3	69.1	79.5	92	105.4	120.4
인구(백만)	83.1	84.2	85.4	86.6	87.8	89	90.2	91.4
일인당 GDP (US\$)	528	625	705.9	798.7	905.7	1,333.5	1,169.1	1,316.9
연간 GDP 성장률(%)	7.7	8.4	8.2	8.2	8.2	8.7	8.5	8.5
연간 산업 성장률(%)	16.1	17.2	15.7	16.5	16.6	16.9	16.4	15.7

(자료: Ho Chi Minh city Statistical Yearbook, World Bank, BMI 2007. 2/4분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별 투자여건 순위]

국가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	통신시장 성숙도	통신시장 성장가능성	경쟁 여건	면허발급 및 규제	종합 점수	지역 순위
일본	7	9	8	5	9	9	47	1
호주	8	8.5	10	4	8	7	45.5	2
대만	7	7	9	4	8	9	44	3
말레이시아	8	6	7	6	7	9	43	4
한국	8	6	9	4	8	7	42	5
싱가포르	8	7	9	3	6	8	41	6
홍콩	6	5.5	9	2	9	8	39.5	7
인도	6.5	7	1	10	6	8	38.5	8
파키스탄	6	4.5	2	7	7	8	34.5	9
인도네시아	6	5	2	8	7	6	34	10
중국	7.5	5	3	10	4	4	33.5	11
필리핀	6	5	3	6	7	6	33	12
태국	7	6	4	6	5	4	32	13
베트남	6	5	3	7	5	6	32	13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참고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보고서

□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 투자여건 개괄

<p>강점 (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N Telecom과 Hanoi Telecom의 시장 진입으로 이동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경쟁 강화 ■ 2006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분야에서 가입자 증가율이 각각 104%, 43%를 기록 ■ 2007년 WTO 가입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었고, 그 결과 브로드밴드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상황
<p>약점 (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통신 분야에서 VNPT(베트남우정통신공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 ■ 전략적 투자자 부족 ■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반면, 시골 지역에서는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p>기회 (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경쟁 강화가 급격한 성장세를 견인 ■ 베트남 브로드밴드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2008년 경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정부가 통신산업 자유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Telekom Malaysia, SingTel, Altimo와 같은 전략적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예상됨 ■ VNPT, Viettel, EVN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이 시골지역으로 사업 확대
<p>위험 요소 (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부문 탈규제화 정책 불투명 ■ 베트남 주거지역의 1/3 가량이 산악지대인 관계로 통신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 네트워크 확충이 지연될 경우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사업자간 경쟁강화로 저가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 시장 개요

- 2006년 베트남 통신시장 규모는 약 250억 달러로 전년대비 29% 성장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유선통신 회선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
- 특히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에 힘입어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베트남의 유선통신 시장은 시장자유화 정책에 의해 5개의 유선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독점 사업자인 국영통신사업자 VNPT(베트남우정통신공사)가 시장을 주도
 - VNPT 이외의 경쟁 사업자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하고 대부분 VNPT의 네트워크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어서, VNPT가 거의 모든 통신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
- 이동통신 시장은 5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Vinaphone, Mobifone, Cityphone 등은 VNPT의 자회사로, S-Fone, Viettel 등의 민영사업자와 경쟁 중

□ 유선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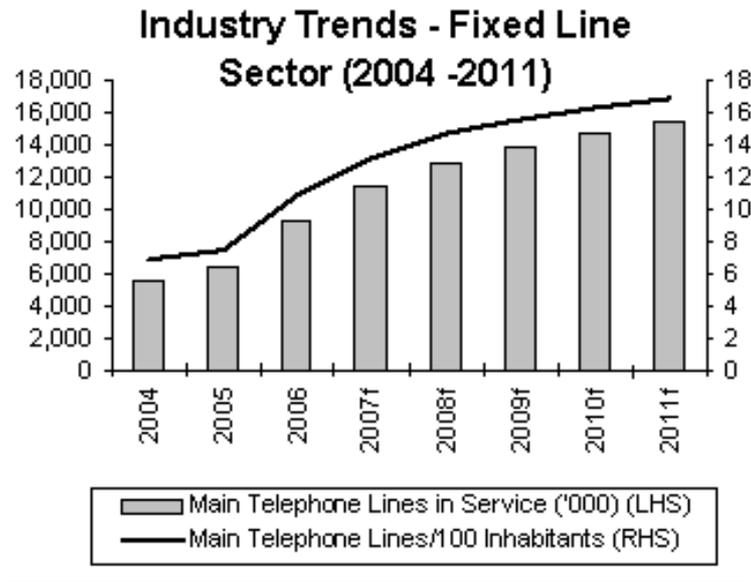
- 베트남 유선통신은 2006년 말 기준 약 930만 회선으로, 2004년에는 130%, 2005년 56.5%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백 명당 보급률은 10.9%를 기록

[베트남 유선통신 회선 보급 현황 및 전망]

(단위 : 천회선, %)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회선 수	5,500	6,480	9,300	11,440	12,900	13,900	14,700	15,500
보급률	6.8	7.5	10.9	13.2	14.7	15.6	16.3	16.9

(자료 : MPT, ITU, Operator Results, BMI Research 재인용)



Source: BMI Research

-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은 2006년 한 해 동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2006년 유선통신 신규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43.5% 증가한 280만 명을 기록하였고, 보급률은 약 11% 수준
- 단기적으로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말까지 약 1,300만 명의 가입자와 15% 가량의 보급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VNPT는 2007년 6월 1일부로 유선통신요금 및 공중전화요금을 15~20% 가량 인하할 계획을 밝혀, 유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향후 이동통신 및 '브로드밴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선통신 시장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선 통신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또한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동서로는 폭이 좁으나 남북으로는 약 1.650km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 지리적인 요소 및 초기 비용 측면으로 인해 유선통신보다 무선통신 산업이 더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선통신 보급률 현황]

국가	2006년 기준 유선통신 보급률(%)	2006년 지역 내 순위 (2005년 순위)
대만	57.6	1(1)
홍콩	54.0	2(3)
호주	52.0	3(2)
한국	46.1	4(4)
일본	44.1	5(5)
싱가포르	42.0	6(6)
중국	28.2	7(7)
말레이시아	16.8	8(8)
태국	11.0	9(9)
베트남	10.9	10(10)
인도네시아	6.3	11(11)
파키스탄	4.4	12(14)
필리핀	4.0	13(13)
인도	3.6	14(14)

(자료: BMI 2007년 2/4분기)

□ 이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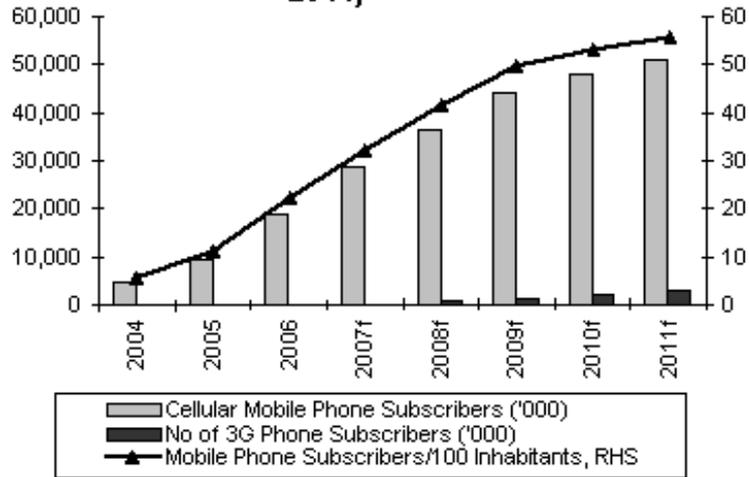
- 이동통신 부문은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중 하나로, 베트남은 1986년에서야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한 유선통신에 비해 비교적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이동통신 인프라가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음
- 2006년 말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87.5% 증가한 약 1,890만 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에는 약 3,6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수, 보급 현황/전망]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이동통신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4,675	9,300	18,980	28,800	36,500	44,160	48,130	51,000
이동통신 보급률 (%)	5.6	11.2	22.3	32.1	41.6	49.7	53.3	55.8
3G 폰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0	0	0	100	700	1,360	2,100	3,050
모바일 시장에서 3G 비중(%)	0	0	0	0.3	1.9	3.1	4.4	6.0
이동통신 가입자 수/ 무선통신 가입자 수 (%)	84.2	135.8	204.1	251.7	282.9	317.7	327.4	329.0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Industry Trends - Mobile Forecast (2004-2011)



Source: BMI Research

- o 2006년 12월 Vinaphone, MobiFone, Viettel 등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은 사업효율화를 위해 쌍방 네트워크 인프라를 연동해 사용하기로 협력계약을 체결
- o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2007년 2월 기준 Vinaphone이 32%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MobiFone이 29%, Viettel이 26%, S-Fone이 12%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 업체간 가입자 규모		
사업자	최대 주주	가입자 규모 (백 만)
Viettel*	Ministry of Defence	14 (2007 6월 기준)
MobiFone	VNPT	9.5 (2007 5월 기준)
VinaPhone	VNPT	9 (2007 5월 기준)

Source: Thanh Nien; *estimate



- o MPT는 2007년 중 3G 서비스 및 WiMax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총 4개의 사업권을 놓고 각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 S-Fone은 이미 EV-DO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MobiFone은 2G 및 2.5G 네트워크와 병행하여 3G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Viettel은 WCDMA 기반의 3G 기술을 도입할 예정
- 반면, VinaPhone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EDGE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2007년 내에 Hanoi, HCM City, Da Nang 등 3대 주요 도시에 제공할 예정
- o 한편 베트남은 WTO가입에 따라 현재 5%인 핸드폰 수입 관세율이 2012년까지 무관세(0%)로 전환될 예정

- 베트남에서도 핸드폰은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로 핸드폰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베트남 핸드폰 시장에서 500만 동(약 312달러) 이상의 고가품 점유율은 18%, 300만 동(약 187달러) 이하의 저가품 점유율은 60% 가량으로 집계됨
 - 현재까지는 저가품 위주의 시장이나 점차 중/고가품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추세
- 베트남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외국계 통신업체들도 베트남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상황. 외국계 통신업체들은 베트남 통신업체 지분인수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모색 중이나 주식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향후 Telekom Malaysia, SingTel, Altimo社 등의 해외기업들이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 가세할 경우 이동통신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외국계 통신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지 3대 이동통신 업체는 Mobifone, Vinaphone, Viettel Mobile社로, 이들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8년 경 부분적으로 민영화 될 전망. VNPT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제도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지 이동통신 업체 지분을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
-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에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며, 2010년 이후에는 단독 투자법인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 베트남 시장 진출을 일찍부터 서둘러 온 French Telecom은 현지 통신시장 진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됨. 50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를 보유한 일본의 NTT-DoCoMo사도 세계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통신시장 진출을 계획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동통신 보급률 현황]

국가	2006년 기준 이동통신 보급률(%)	2006년 지역 내 순위 (2005년 순위)
홍콩	133.0	1(1)
싱가포르	105.0	2(2)
호주	100.1	3(3)
대만	91.5	4(4)
말레이시아	88.0	5(6)
한국	84.0	6(5)
일본	78.6	7(7)
필리핀	51.1	8(9)
태국	50.8	9(8)
중국	34.9	10(10)
인도네시아	28.2	11(11)
파키스탄	27.1	12(12)
베트남	22.3	13(13)
인도	13.4	14(14)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 인터넷

- 베트남에는 1997년 최초로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당시 인터넷 네트워크는 VNPT가 독점하고 있어, ISP들이 높은 비용으로 VNPT의

네트워크를 임차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베트남의 인터넷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일부 특권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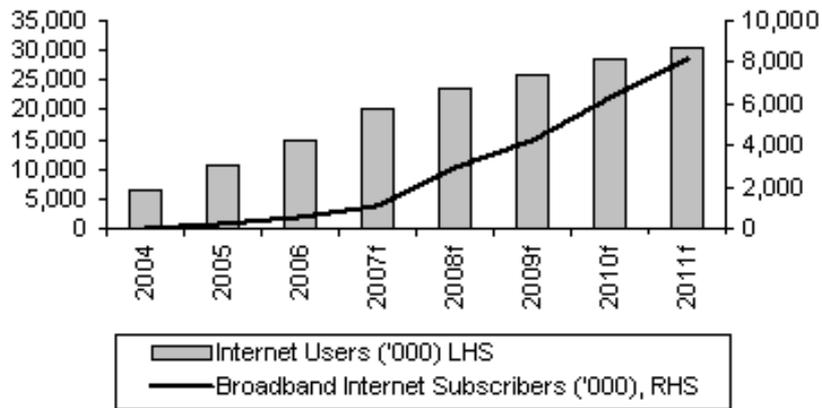
- o 그러나 2002년 VNPT의 독점이 철폐되고, FPT, Saigon Postel, Viettel 등이 인터넷 서비스 인가를 받았으며, 인터넷 서비스 독점 폐지 이후 베트남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 건수는 2003년 5월 45만 건에서 2005년에는 300만 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
- o 2006년 12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2년도의 약 10배 수준인 1,460만 명으로, 보급률은 약 17.6%를 기록
 - 총 15개의 ISP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특히 VNPT의 자회사인 VDC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외에 FPT, Saigon Postel, Viettel 등의 ISP가 활동 중

[베트남 인터넷 활용 현황 및 전망]

	2004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천 명)	6,345	10,7111	14,684	20,100	23,400	26,000	28,650	30,250
인터넷 보급률 (%)	7.7	12.9	17.64	23.4	26.6	29.9	33.3	34.8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45	210	517	1,050	2,900	4,200	6,350	8,120
브로드밴드 보급률 (%)	0.05	0.25	0.62	1.22	3.45	5.01	7.57	9.67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Industry Trends - Internet Sector (2004 -2011)



Source: BMI Research

- o 인터넷 가입자 수도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broadband 가입자 수도 2006년 12월 51만7,000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broadband의 보급 및 사용률이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 인터넷 시장은 총 인터넷 가입자의 73%가 호치민과 하노이 등 양대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
- o 현재 VDC를 비롯한 4개의 사업자들이 WiMax 시범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며, 특히 VDC는 Lao Cai 지방에서 WiMax 서비스를 제공 중
 - VTC는 Hanoi와 HCM City에서 WiMax기술을 실험 중이며, Viettel은 Mobile WiMax만 제공할 계획인 반면 FPT Telecom은 Mobile WiMax와 Fixed WiMax를 모두 서비스할 계획임
- o 2010년에는 인터넷 사용요금 인하 및 ADSL 등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보급률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 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가정으로 이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의 컴퓨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PC 수요 증가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다음으로 컴퓨터 소비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2006년 베트남의 컴퓨터 소비는 50만대, 매출액은 2억 3,2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베트남의 컴퓨터 소비량은 연평균 20%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보급률 현황]

국가	2006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	2006년 지역 내 순위 (2005년 순위)
한국	73.3	1(1)
호주	68.6	2(2)
일본	65.1	3(4)
싱가포르	64.9	4(5)
대만	62.2	5(4)
홍콩	56.0	6(6)
말레이시아	43.8	7(7)
태국	21.6	8(8)
베트남	17.6	9(9)
인도네시아	11.2	10(11)
중국	10.0	11(12)
필리핀	9.6	12(10)
인도	9.6	13(13)
파키스탄	1.5	14(14)

(자료: BMI Research 2007년 2/4분기)

□ 3G

- MPT는 2007년 말 3G 서비스 및 WiMax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총 4개의 사업권을 놓고 6개 이동통신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구도가 형성될 전망
 - S-Fone은 이미 EV-DO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MobiFone은 2G 및 2.5G 네트워크와 병행하여 3G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Viettel은 WCDMA 기반의 3G 기술을 도입할 예정
 - 반면, VinaPhone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EDGE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2007년 내에 Hanoi, HCM City, Da Nang 등 3대 주요 도시에 제공할 예정
 - Vinaphone과 MobiFone은 올 해 말까지 3G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MobiFone은 2년에 걸친 3G 시험기간을 거쳤으며, Vinaphone은 Nokia와 제휴해 올 8월 종료를 목표로 3G 시범 서비스를 실시 중
- 현재 VDC를 비롯한 4개의 사업자들이 WiMax 시범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이며, 특히 VDC는 Lao Cai 지방에서 WiMax 서비스를 제공 중
 - VTC는 Hanoi와 HCM City에서 WiMax기술을 실험 중이며, Viettel은 Mobile WiMax만 제공할 계획인 반면 FPT Telecom은 Mobile WiMax와 Fixed WiMax를 모두 서비스할 계획

[베트남 통신 분야 주요 사업자 현황]

회사명	소유 형태	사업 대상
VNPT (베트남우정통신공사)	정부 소유(100%)	Local, long-distance and international telephony, 데이터, 인터넷
Vinaphone	Vietnam Telecom Services (100%)	이동통신
MobiFone	Vietnam Telecom Services (100%)	이동통신
Viettel	베트남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이동통신, local telephony
S-Fone	합작회사: Saigon Postel&SLD (SLD: SKT(73.3%), LG전자(25.4%), 동아일렉콤(1.3%)이 베트남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	이동통신
Electricity of Vietnam (EVN Telecom)	베트남 전력공사(100%)	Local, long-distance and international telephony, 데이터, 인터넷, 이동통신
Hanoi Telecom	합작회사: Hanoi Telecom & HTIL (Hutchison Telecommunications international)	이동통신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

(1) VNPT(베트남우정통신공사)

- 베트남 최대의 국영 통신사업자로, 1995년 통신부처인 DGPT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됨
- 정부의 독점 폐지 정책에 의해 VNPT는 시장 경쟁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편 및 통신 부문 분사를 통해 분야별 전문화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베트남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

- 주요 사업 : 우편 및 전기통신 서비스, 우편 및 전기통신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관련 장비 공급, 통신관련 컨설팅 제공 등

[VNPT SWOT]

<p>강점 (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부문에 걸쳐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 ■ 유선통신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의 60% 이상을 보유
<p>약점 (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지역의 경우 통신 인프라 부족 ■ 유선통신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 제기 ■ 이동통신부문에서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위험성
<p>기회 (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적 사업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편 계획 ■ 자사 계열의 Vianphone과 MobiFone이 3G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익성 기대 ■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세 ■ GPhone(고정 무선 서비스)의 실시로 시골지역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
<p>위험 요소 (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Viettel과의 경쟁이 강화될 전망 ■ 경쟁업체들이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단행할 경우, 유선통신 시장이 위축될 위험성 ■ 구조개편 계획의 불확실성 및 지연 가능성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 주소: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VNPT) 18 Nguyen Du Street Hanoi, Vietnam
- 전화: +84 (49) 434 936
- 팩스: +84 (48) 255 851
- 사이트: www.vnpt.com.vn

[연도별 매출규모]

(단위: VND)

	2003	2004	2005	2006
연간 매출액	26조5,100억 동	30조6,600억 동	33조8,000억 동	38조3,000억 동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VNPT 유선 및 이동통신 연도별 가입자 규모]

	2005	2006	2007 2월 기준
유선통신 가입자 수	630만 명	800만 명	
이동통신 가입자 수	670만 명	1050만 명	1,260만 명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2) Viettel

- 국방성 산하의 METC(Militar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통신사업권을 획득하여 베트남 제2의 통신사업자가 되었으며, 이후 Viettel Corporation으로 명칭을 변경
- 주요 사업 : 공중교환전화(PSTN), 무선전화, 무선호출, 우편 등

[Viettel SWOT]

강점 (Streng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 무선 서비스, 이동통신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권 보유 ■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 요금 ■ 베트남 전역을 사업권으로 지정 ■ 시장 진출 이후 단 기간에 주요 사업자로 부상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부족 ■ 여타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어려움 ■ 해외 협력업체 부재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됨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전역으로 서비스 확장 가능 ■ WiMAX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권 획득
위협 요소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연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으로 저가 경쟁이 촉발 될 수 있음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 주소: Viettel, 1A Giang Van Minh Street, Ba Dinh, Hanoi. Vietnam
- 전화: +84 (4) 255 6789
- 팩스: +84 (4) 846 0486
- 사이트: www.viettel.vn

[Viettel 유선 및 이동통신 연도별 가입자 규모]

	2004	2005	2006 1월 기준	2006 12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	16만 명	170만 명	NA	500만 명
유선통신 가입자 수	NA	NA	10만 명 이상	NA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3) Saigon Postel

- 호치민시가 국영기업, 경찰, 군, 민간기업 등의 11개 주주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1995년 8월 국내 및 국제통신 허가를 취득한 제3 통신사업자
- '97년 WLL 기술을 사용한 250만회선 규모의 전화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행
- '01년 9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SLD텔레콤과 2.3억 달러 규모의 CDM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03년 6월부터

'S-Fone'이라는 브랜드로 CDMA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 : 전기 및 통신망 설계, 운영 및 관련 장비의 수출, 제조

□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1) MobiFone

- VNPT 산하 VMS(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 Company)와 스웨덴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의 자회사인 Comvik International Vietnam 간의 경영협력계약(BCC)에 의해 1993년 설립된 베트남 제1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GSM 서비스 제공 중. 참고로, 지난 2005년 베트남 정부는 Comvik과의 경영협력계약을 해지
- 2006년 12월 기준 5백만 명 가량의 가입자를 보유한 MobiFone은 2008년 초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방침.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르면, 지분의 1/3은 정부 소유형태로 유지되며, 1/3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될 예정. 나머지 지분은 주식시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형식
- 하지만, 정부의 민영화방침이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향후 민영화 시기와 형태는 변경될 여지가 있음

- 주소: 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VMS-MobiFone) 811 A Giai Phong Hai Ba Trung Hanoi Vietnam
- 전화: +84 (4) 864 9533
- 팩스: +84 (4) 864 8534

- 사이트: www.mobifone.com.vn

[MobiFone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

	2003	2004	2005년, 11월 기준	2006	2007년 3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	103만6,000명	184만3,000명	320만 명	500만 명	850만 명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 MobiFone은 2007년 3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35%를 점유

(2) Vinaphone

- VNPT 산하의 GPC(Vietnam Telecom Services Company)사가 1996년 설립한 자회사
 - GSM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S-Fone 등 다른 통신회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사 통신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2006년 말 기준으로 Vinaphone은 55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자체 집계함
 - MobiFone과 마찬가지로 Vinaphone도 2008년 경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예정
- 주소: Vietnam Telecom Services Company(GPC-Vinaphone), 57A Hyunh Thuc Khang Dong Da Hanoi, Vietnam
 - 전화: +84 (4) 835 8815

- 팩스: +84 (4) 835 7502
- 사이트: www.gpc.vnn.vn

[MobiFone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

	2003	2004	2005년, 11월	2006
이동통신 가입자 수	130만 명	250만 명	350만 명	550만 명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3) S-Fone

- 2003년 7월 SPT(Saigon Postel)와 SLD Telecom의 경영협력계약 (BCC)으로 설립된 통신 사업자로, 베트남 최초로 CDMA 방식 서비스를 제공 중

※ SLD Telecom : SKT(73.3%), LG전자(25.4%), 동아일렉콤(1.3%)이 베트남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

[S-Fone SWOT]

강점 (Streng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SK 텔레콤과 LS전자의 지원 ■ 고정 무선 서비스, 이동통신,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권 보유 ■ 2006년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의 가입자 확보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텔레콤과 LG는 S-Fone의 지분 보유가 허용되지 않음 ■ 현재까지 서비스 지역이 13개 지역으로 제한된 상태 ■ Viettel을 포함한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이 부담
기회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 ■ 차세대 서비스를 통한 성장 잠재력 보유
위협 요소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05년 점유율 면에서 Viettel의 추격을 허용 ■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강화로 수익성 저하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 주소: S-Fone, 97 Nguyen Thi Minh Khai, Ben Thanh Distric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84 (8) 404 0079
- 팩스: +84 (4) 925 4287
- 사이트: www.stelecom.com.vn

[S-Fone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

	2004년	2005년 하반기	2006년	2007년 3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	16만 명	25만5,000명	180만 명	183만 명

(자료: BMI Research 2007.2/4분기)

III.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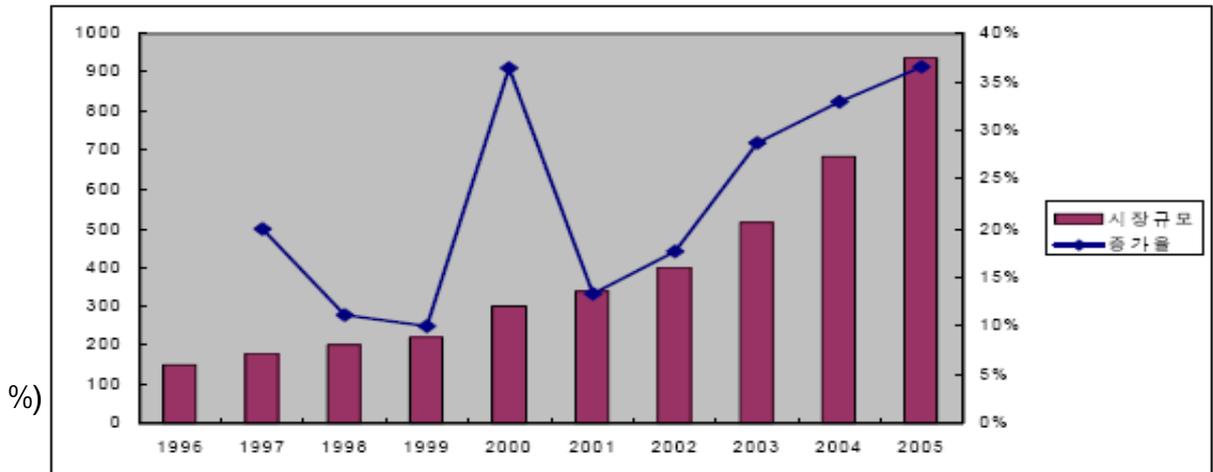
1 IT 시장 규모

□ IT시장규모

- 2005년 말 기준 베트남 정보통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9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전 세계 IT 시장 성장률이 5%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시장규모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 5)

- 그러나 성장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하드웨어 제품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은 크지 않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향후 IT 응용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세계은행은 베트남 정보통신 응용부문 지원을 위해 1억 달러의 ODA자금을 지원할 예정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프트웨어	50	60	75	105	140	175
하드웨어	250	280	325	410	545	760
소계	300	340	400	515	685	935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 5)

2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 산업 현황

- 최근 수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전국적으로 4,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만 명 이상의 IT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2000년 기준 5,000만 달러에 불과 하였으나 이후 연간 25%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억7,5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 최근 세계적인 IT 아웃소싱업체인 Harvey Nash는 향후 5년 내 베트남이 중국과 인도 양국을 추월해 가장 환영받는 아웃소싱 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2007년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제3대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대상국으로 평가됨
- 특히 베트남은 노동 인구 중 8만 명의 IT 졸업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9,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베트남 대학 졸업생 중 83%는 이공계를 전공한 것으로 집계

- 현재 일본의 혼다자동차와 미국의 인텔 등이 베트남 업체에 IT 서비스 아웃소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올해 초 호치민시 인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인텔의 투자결정은 해외 기술업체들의 베트남 투자열기를 확산시킨 기폭제로 작용. 베트남정부는 이 같은 투자열기가 현지 하이테크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부심
- 베트남경제의 고도성장과 해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 힘입어 중산층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 따라서 베트남은 단순히 투자대상만이 아닌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IT 아웃소싱 허브로 부상

- 올해 초 베트남 투자를 결정한 영국의 IT업체 하비 내시는 베트남 현지 최대 기술업체인 FPT 계열사(FPT Software)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해 소프트웨어 개발기지를 마련함. 현재 하비 내시는 베트남에서 자체 사업과 FPT와의 제휴를 통해 1,500명의 현지 인력을 채용. 하비 내시는 베트남 합작법인을 통해 해외 텔레콤 업체들을 위한 요금 계산 소프트웨어, 혼다자동차 영국 부문의 인력관리 프로그램, 디스커버리 채널과 MSNBC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수주해 개발에 착수함
- 올 초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10억 달러를 들여 베트남에 반도체 테스트 및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것 또한 IT 아웃소싱 허브로써 베트남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례

□ 베트남의 최대 강점: 풍부한 노동시장

- 2006년 하노이를 방문한 빌 게이츠 회장은 베트남이 S/W 개발과 다른 형태의 아웃소싱 분야에서 제2의 인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베트남의 공업 부지는 중국에 비해 저렴하며, 평균 임금도 중국의 해안 공업지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이 밖에 9000만 명의 베트남 인구 중 절반가량이 30세 이하로, 노동시장의 유동성도 보장된 상태
- 한편, 캘리포니아 소재 컨설팅업체 네오IT의 2006년 세계 주요 도시의 아웃소싱 경쟁력 조사 결과에서 베트남의 호치민 시는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상하이로 제치고 비(非)인도 도시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함. 호치민 시에는 현재 MS와 소니, 일렉트로닉 아츠의 비디오 게임 디자인 부문이 활동 중

□ 토착 하이테크 기업 육성

- 해외업체들의 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글라스 에그 디지털 미디어, 얼라이브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베트남 국내 IT기업들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이들 업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일렉트릭 아츠와 같은 해외기업들을 상대로 비디오 게임 부품을 설계해 납품. TMA 솔루션과 같은 현지 업체들도 호텔 네트워크와 알카텔-루슨트와 같은 고객사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함
- 한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IT 아웃소싱 시장은 2005년 기준으로 340억 달러 규모로, 인도, 중국, 필리핀 등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각축전을 펼치고 있음. 이 같은 각축전에 베트남이 새롭게 참여한 상황. IT 업계에서는 기술인력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IT기업들도 현지 기술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 해외 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베트남정부는 공학과 수학에 중점을 둔 이공계 인력 배출에 역량을 강화

□ 베트남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 베트남 우정통신부는 2006~10년에 걸친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방안을 추진 중. 해당 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률을 35~40%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1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
- 우정통신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수의 IT 전문 인력 육성, 수출 비중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등을 제시함.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개발의 기초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에 두고 IT 기업들에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이익 실현 후 4년 동안 면제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수출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음
-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경감해 주고 있음

어 IT 기업들은 비교적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 베트남 하드웨어 산업 현황

- 베트남 하드웨어 산업 규모는 2000년 2억5,500만 달러에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7억6,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베트남 전자산업의 매출 대부분은 자국기업보다는 외국인기업을 통한 수출에서 창출된 것
- 최근에는 FPT Eled, CMS社를 포함한 현지 업체들도 매출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기업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은 각 산업분야 중 발전이 늦은 산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이 내수 수요의 20~30% 정도만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은 약 300개 사업체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외국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대부분의 가전제품 회사들은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제품을 조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부품 및 부속품 분야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인텔의 베트남 반도체 생산 투자 계획과 캐논의 프린터 생산 투자 프로젝트와 같이 유명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의 전자산업 투자가 다소 증가된 상황

- 2007년 5월 28일 응웬 쩐 중 베트남 수상은 장기적인 전자산업 발전계획을 승인함.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0년까지 전자산업분야 생산 매출액을 40억~60억 달러 규모로 증가시키고, 30~50억 달러 상당의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이를 통해 30만 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자산업의 연간 성장률을 20~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하이테크 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증가

- 올해 초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일본, 미국, 대만 기업들이 베트남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특히, 캐논, 산요, 마쓰시타, 소니, 후지쓰, 도시바, Nidec 등 일본기업들의 약진이 주목을 끄는 상황
- 캐논은 하노이 탕롱 산업단지에 레이저 프린터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이미 1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Bac Ninh 지방에도 생산설비를 추가할 예정. 올해 캐논의 현지 공장 총 매출액 목표는 10억 달러 규모
- 지난 10년간 베트남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한 Nidec社도 2010년까지 10개의 하이테크 공장 건설을 위해 총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한편, 미국의 인텔사는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컴퓨터칩 조립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Jabil社 또한 하이테크 산업 부문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
- 대만 기업들은 하이테크 전자장비 생산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 Foxconn社의 경우 베트남 북부지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 대만 TECO 그룹은 현지 업체인 SaigonTel社와 합작투자로 호치민시에 소프트웨어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 센터에 100여개의 대만 IT 기업을 유치할 계획

IV. IT 분야 협력 현황

1 IT분야 협력 현황

□ IT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수출				수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전체산업	3,255,574	3,431,654	3,927,476	5,760,054	673,300	694,043	924,856	1,391,588
IT산업	273,969	343,681	432,956	416,311	58,927	45,304	46,966	101,779
IT의 비중	8.4%	10.0%	11.0%	7.2%	8.8%	6.5%	5.1%	7.3%

(출처 : KIICA, 한국무역협회)

□ 對베트남 IT분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 달러)

품목	수출				수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통신기기 및 장비	137,006	198,700	289,761	223,669	4,169	3,655	12,452	43,454
유선통신기기 및 장비	32,394	28,004	50,437	49,357	3,983	2,967	11,490	43,084
무선통신기기 및 장비	104,612	170,696	239,323	174,312	186	688	962	370
휴대폰	92,673	156,851	196,850	90,337	46	109	792	94
정보기기	51,077	62,440	59,759	62,334	22,147	19,412	21,164	25,011
컴퓨터	3,240	6,756	13,767	8,635	404	162	218	127
노트북	628	100	53	93	1	8	2	4
주변기기	46,756	54,567	43,859	50,441	21,110	18,947	20,885	24,541
모니터	41,993	43,963	30,555	35,264	18,381	12,665	8,060	4,661
저장장치	2,825	9,868	12,924	13,181	97	220	526	1,466
패키지 S/W	304	644	503	1,061	626	268	2	339
디지털가전/방송	61,446	40,262	43,179	57,885	25,061	15,135	8,090	25,484
디지털 TV	34,677	19,651	27,202	530	2,697	674	175	1,072
셋탑박스	4,285	2,722	3,513	1,762	0	0	0	0
디지털미디어 기기	3,653	2,388	1,625	3,872	66	115	72	9,452
IT 부품	24,440	42,279	40,258	72,423	7,551	7,102	5,260	7,829
반도체(능동부품)	6,174	18,349	10,179	30,988	180	594	487	632
디스플레이패널	262	621	2,590	4,351	130	79	326	701
범용부품	18,004	23,308	27,490	37,083	7,241	6,430	4,447	6,496
합계	273,969	343,681	432,956	416,311	58,927	45,304	46,966	101,779

(출처 : KIICA, 한국무역협회)

2 정부 간 협력

□ 정부 간 협력

○ 한·베트남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2007. 3)

- 한·베트남 공동실무위원회 설치, 정보 및 인력 교류, 공동연구개발·기술협력·합작투자 등 중소기업 간 협력, 양국 전시회 참가 등의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 포함

○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2006)

-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간 제1단계 정보통신기
기 상호인정협정 체결

○ 한-베트남 IT 장관회담 개최 (2006. 10)

-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도쭙타 베트남 우정통신
부장관과 양국 간 IT 협력 및 교류확대를 위한 IT회담을 가짐
- 양국 장관은 DMB·와이프로 등 양국 관심사의 협력 확대방안과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지원 등 IT 현안을 논의했으며, 또한 지
난 '95년 교환한 MOU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IT분야 협력을
위한 2차 MOU를 교환

○ 한-베트남 IT 차관회의 개최 (2006. 5)

-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제2회 월드 ICT 서밋' 참가를 위해 방한 중
인 르 남 탕 베트남 우정통신부 차관과 IT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IT투자협력 확대, 멕시코 국가정보화담당관과는 멕시코의 DMB 도
입과 IT인력양성 관련 의제를 논의

○ 한-베트남 IT 차관회의 개최 (2005. 9)

- 노준형 정통부 차관은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한·중·일 정
보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베트남 도텡따 우편통신부 장관을 만
나 '05년 7월 이루어진 한·베트남 WTO 가입 합의내용이 차질없
이 이행돼 양국 기업의 동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는 뜻을 밝힘

○ 한-베트남 IT포럼 개최 (2004. 6)

- 한국 IT 리더스포럼은 베트남에서 현지 우정통신부(MPT)와 공동
으로 '한국-베트남 IT 포럼'을 개최
- 동 행사에는 베트남 따(Ta) 우정통신부(MPT) 장관과 띠엔(Tien)
정보통신정책연구소(NIPTS) 원장, 한국 윤동윤 IT리더스포럼 회

장, 양승택 동명정보대 총장, 박성득 전자신문 사장 등이 참석

○ KISDI, 베트남 전자정부 사업 협약 조인식 (2004. 3)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베트남 전자정부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 프로젝트'의 착수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할 베트남 NIPTS(National Institute of Post and Telematics Strategy)와 정식 협약조인식을 가짐
-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2008년까지 주요 사업과 단계별 추진과정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삼성SDS, LG CNS, 현대정보기술 등 국내 SI업체도 함께 참여

○ 베트남에 인터넷 훈련센터 개소 (2003. 11)

- 정통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인터넷 교육훈련센터 개소식을 가졌으며, 동 센터는 캄보디아, 루마니아에 이어 세 번째임

○ 베트남 우정통신부 차관 방한 (2003. 10)

- 베트남 우정통신부(MPT) 마이 리엠 죽 차관 등 베트남 IT 관계자들이 한국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모델 연수를 위해 방한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등 정보시스템을 체험하고, 정통부를 방문하여 양국 간 IT분야 협력관계 구축 및 베트남 정보화 사업에 국내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

○ 한-베트남, IT 장관 회담 개최 (2003. 4)

-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도 쯩 따 베트남 우정통신부(MPT)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 정통부는 베트남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 중인 KT의 적정 투자 수익률 보장을 베트남 측에 요구하였으며, 베트남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베트남 현지의 소프트웨어지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자체들과의 교류 협력도 지원키로 함

o 김태현 차관 방베, 한·베트남 IT산업 협력 강화 (2002. 4)

- 이한동 국무총리를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태현 정통부 차관은 마이 리엠 쪽 우정통신청(DGPT) 장관과 도 트링 따 베트남우전공사(VNPT) 회장을 만나 총리 회담에서 합의한 '한·베트남 정보통신 발전 포럼'을 통해 CDMA와 초고속 인터넷 등에 대한 기술과 정책을 교류할 실무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IT인력을 교류키로 합의

3 | 국내 IT기업 베트남 진출현황

□ 국내 IT기업 베트남 진출현황

회사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업종	연매출 (US\$천)	직원 (한국:외국)
(주)진코	대표사무소	2000	제조업 (통신기기, 방송장비)	NA	5:5
LG전자 호치민 지사	법인-합작	1997	제조업 (통신기기, 방송장비)	100,000	5:400
SLD텔레콤	NA	NA	통신업 (이동통신서비스)	NA	NA
삼성비나일렉트로닉스	합작투자	1994	제조업 (방송수신기, 방송기기)	NA	5:220

□ SKT, S-Fone 사업 실시

o S-Fone(S-Telecom)으로 CDMA 이동통신사업 개시('03.7)

- 베트남 제3이동통신 사업자인 SPT(Saigon Postal)와 SLD Telecom의 경영

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체결 후 사업 추진 중

※SLD Telecom : SKT(73.3%), LG전자(25.4%), 동아일렉콤(1.3%)이 베트남 진출을 위해 설립

- o 2006년 8월 기준 약 65만 명의 가입자확보로 점유율 4.3%를 차지

【베트남 이동통신시장 경쟁현황】

(기준 : '06. 6월말)

구 분	GSM			CDMA	기 타	전 체
	Vina	Mobi	Viettel	S-Fone	CityPhone	
가입자 수 (점유율)	540만 (36.7%)	502만 (34.1%)	349만 (23.7%)	64만 (4.3%)	17만 (1.2%)	1,472만 (100%)

(자료 : SK텔레콤)

- o 경영협력계약(BCC)으로 SLD Telecom은 향후 15년간 발생이익의 50%를 획득하게 되나, 경영참여는 불가능한 상황

※총 1.8억불 투자('06. 6월 현재)중이며, BCC계약상 15년 동안 2.2억불 투자

- SKT는 SLD Telecom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와 시장대처를 위해 SLD Telecom의 조인트벤처 전환을 적극 모색 중

※S-Fone은 경영참여가 일체 배제되나, 허치슨 등이 참여한 하노이텔레콤('06.9월 사업 개시)은 허치슨에 경영참여 허용

□ KT, 베트남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 o 2001년 11월 한-베트남 인터넷 직통망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베트남→태국→이란→알제리 등 대륙의 서쪽으로 '인터넷 실�크 로드'를 구축하여 운영 중

- KT는 한-베트남 수교 6년 전인 '89년부터 KT 연수원 등을 통해 총 608명의 통신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베트남 통신발전에 기여

- '96~'01년까지 4,000만 달러를 투입해 15만 회선의 교환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또한 이익을 전액 본국으로 송환하는 다른 외국기업과는 달리 일정 부분을 초등학교 건립, R&D 협력 등 사회공헌으로 환원함으로써 베트남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옴
- o 이런 노력의 결과 KT는 2002년부터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도 베트남우정공사(VNPT)의 자회사인 통신업체 VDC와 제휴해 베트남 북부 4개 도시에 4천 회선의 ADSL 망을 구축

□ KT, 베트남 통신망 현대화 사업 추진

- o '97. 4월부터 베트남 북부 경제특구지역 4개성(하이퐁, 하이즈엉, 흥옌, 광린)에 VNPT와 함께 전화망 확장사업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으로 참여, '06.4월로 사업 종료
- 투자규모는 총 4천만 달러로, 사업기간은 '97~'06년(10년간)이며 수익배분은 7년임

※수익배분은 KT(38%), VNPT(62%)이며, 저조한 투자성과 유지로 최저보장수익 12% 대비 실제 2% 이하로 수익실적이 부진함

V. IT 동향

□ VNPT, 美 모토로라와 GSM 계약 체결 (2008.1)

- VNPT(베트남 우정통신공사)가 美 이동통신 장비 업체 모토로라와의 제휴로 자사(VNPT) 계열의 두 이동통신 사업자(VinaPhone社, MobiFone社)가운데, 한 업체에게 GSM(유럽 이동통신 방식)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확장,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VNPT社는 모토로라와 제휴하여, 자회사인 VinaPhone에 대하여, 전국 65곳 이상의 GSM네트워크 지점망을 설치함과 동시에, GSM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 및 네트워크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제반시설을 지원할 방침
- VNPT가 이와 같이, 투자를 서두르는 데는 2007년 상반기, 경쟁업체인 Viettel에게 자국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사업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와는 달리, Viettel社는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점망 확대에 의해, 가입자 수가 무려 1,4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Viettel社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기존보다 15% 더 낮춰, 신규 가입자 유치를 더욱 가속화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해, VNPT의 자회사인 VinaPhon과 Mobifone은 통신 요금을 현재보다 25%내지 28% 추가 삭감해 가입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 VinaPhone社는 모토로라와 제휴중인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지점망 배치 계약이 완료되면, 가입자 규모 2,880만 명, 보급률 32%에 달할 것이며, 2009년 까지 자사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42%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트남 온라인 광고시장, 급성장세 시연 (2008.1)

- 베트남 광고시장에서 온라인 영역은 불모지에 가까웠으나 최근 젊은 소비자층의 인터넷 활용이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베트남 온라인 시장은 2000년 이후 전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2006년 7600만 달러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며 IT 및 온라인 기업들의 가장 주요한 홍보 및 광고수단으로 부상함
 - 베트남의 경우, 100여 개 이상의 온라인 포털 및 뉴스서비스 사이트와 19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 1600만~18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미래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베트남의 일인당 광고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 기준 4달러 수준으로 중국(18달러)·싱가포르(250달러)·스웨덴(450달러)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향후 10년간 베트남 광고시장은 연평균 9%로 전망되는 경제성장세와 발맞춰 20~3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현재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전환되면서 광고 관련 산업 또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광고시장의 주요 원자재 가운데 하나인 LED, OLED, 조명기기 제품들이 유망 품목으로 기대되고 있음

□ 베트남 통신기업, IPTV(인터넷TV)시장 진입 가속화 (2007.11)

-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 국영기업인 VNPT사가 IPTV시장 진입을 선언하고 2008년 2월부터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에 본격 나설 예정. VNPT사는 현재 ADSL 인터넷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 선도 기업임. 同社가 방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들을 주요 대상으로 IPTV 사업을 개시할 경우 향후 베트남 IPTV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VNPT사는 2008년 1차로 IPTV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악, 패션쇼로 제한하고, 2009년 2단계로 주문형 가라오케, 게임을 비롯한 본격적인 T-commerce(T-info, learning, communication)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
- VNPT사는 시스템 개발과 장비도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중국 ZTE Corp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이 회사와 공동으로 9월 전시회 개최 및 베트남 IPTV시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VNPT사는 또한 미국·한국 등 주요 IT 선진국과의 기술협력도 확대할 계획
- VNPT사는 50만 명가량의 ADSL 가입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2008년 약 2만 명가량의 가입자 유치를 목표를 설정함. 同社는 향후 자사 IPTV 가입자 규모가 2010년까지 10만 명, 2015년까지 2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베트남 온라인게임시장 \$80m 규모 전망 (2007. 10)

-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이 2년 내 8천만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현재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은 외국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2007년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은 5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 2010년에는 8,300만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소프트웨어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2백만 명이 정기적으로 온라인게임을 즐겼으며, 1인당 50 달러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고 추정. 이와 관련해, 베트남 최대 게임업체인 VinaGame은 자신들의 게임에 8백만 개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언급

- 게임업체의 선두기업들은 대부분 외국개발업체들로서,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게임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VNPT, 하노이/호치민에 와이맥스 구축 (2007. 9)

- 베트남 우편통신그룹(VNPT)은 하노이와 호치민市를 대상으로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Lao Cai 지역에서 와이맥스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VNPT는 베트남 최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市에 금년 내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와이맥스 서비스를 위한 게임, 원격투표, 온라인 건강 강좌 등의 콘텐츠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VNPT는 베트남 데이터 통신 회사, 베트남 소프트웨어 미디어 회사와 콘텐츠 제공 협약을 체결
- 와이맥스는 모바일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반경 3km내에 15Mbps 정도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함

□ 베트남정부, 라오 카이 프로젝트 추진 (2007. 9)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 '라오 카이 프로젝트'는 기업 및 사업자와 경제 개발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베트남정부 사이의 협력 무드를 반영

- 지난해 인텔, USAID 및 베트남 정보통신사, '베트남 우편 및 원거리 통신 그룹'에 소속된 지역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WiMAX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
- 라오 카이는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국경마을로, 라오 카이 중심지에는 고정 전화 회선과 DSL 광대역 망이 깔려있지만, 시내를 벗어나면 해당 서비스는 무용지물. 라오 카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최초의 WiMAX 설치사업이며, USAID는 해당 기술의 효용성 입증을 위해 농촌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함
- 하노이와 호치민시에는 이미 통신망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게 된 것이지만, USAID가 라오 카이 지역을 선정한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지방정부의 우호적인 지원을 원하기 때문
- USAID의 프로젝트 설계 및 관리 책임자인 버너드 메이저는 "라오 카이 지역의 1인당 GDP는 330 달러 수준으로 베트남에서도 빈곤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새로운 통신 기반 설비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경무역 활성화,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라오 카이 프로젝트에는 Alvarion BreezeMAX base station과 도시 곳곳에 분산된 약 20대의 WiMAX 장착 CPE 장치가 사용됨. BreezeMAX 안테나는 지역 송전탑 위, 지상으로부터 70m 높이에 설치되어 광섬유 역송 서비스에 연결되는 베이스 기지를 갖추게 됨
- VoIP 서버는 하노이의 한 지점이 호스트이고, VoIP gateway나 session border controller는 지방에 설치됨. CPE나 WiMAX 모뎀은 우체국 지점, 학교, 호텔 및 교외의 농장과 같은 도시 주변의 주요 지점에 설치됨
- 각각의 위치로부터 SIP호환성VoIP폰이 CPE장치에 연결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및 전화 서비스가 제공됨

- USAID에 따르면 WiMAX 2단계 추진 사업은 올 10월에 완료될 예정. 한편, 라오 카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들이 스리랑카, 과테말라, 페루,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저개발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 France Telecom, 베트남 MobiFone 지분 획득 관심 (2007. 8)

- France Telecom이 베트남 제2 이동통신 사업자인 MobiFone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MobiFone의 모회사인 베트남 제1 국영 통신 사업자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VNPT)는 보유 지분을 1/3로 줄이고, 1/3은 주식시장 공개, 나머지 1/3은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하여 MobiFone을 민영화할 방침
- France Telecom의 CEO Didier Lombard는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obiFone의 민영화에 매우 관심이 크며, 베트남은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밝힘
- 한편, 최근 베트남에 사무소를 개설한 Vodafone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모바일 시장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23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보급률은 26%에 불과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3G 서비스 준비 (2007. 8)

- 베트남 통신회사가 월등한 전송 속도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 기술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 3G 서비스 도입은 급성장하는 이동통신 시장에 요구되는 것으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0년 경 3G 서비스 이용자 수가 5천만으로 현재의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한편, 하이테크 회사를 대상으로 전략 컨설팅과 시장진출을 보조하는 일본의 컨설팅 업체 Alliant사의 Yoshitawa Matsubara CEO는 Viet Nam News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이동 통신 산업과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3G의 잠재력에 대해 설명
 - Yoshitawa Matsubara는 베트남이 음성과 데이터의 무선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유선과 2세대 통신 네트워크에서 ADSL과 CDMA 네트워크로의 진화하고 있으며, EV-DO를 통합하여 낙후된 통신 서비스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 베트남은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됨
 - 다수의 산업전문가들은 가격 경쟁보다 품질 경쟁을, 단순한 음성/데이터 서비스보다 다양하고 기술적인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시장 접근을 시도할 것을 권고함

□ 인텔, 베트남 공장 2009년 가동 예정(2007. 8)

- 미국의 인텔사는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올 12월부터 2009년 중반까지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5십만 평방피트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09

년부터 운영에 돌입할 계획

- 2009년 9월에 500명의 엔지니어들을 갖추고 대규모 생산 가동을 시작하며, 연말에는 1000명 정도로 엔지니어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됨
- Intel Products Vietnam의 Howrth 부장에 따르면, 호치민 시의 낙후된 전력망을 우려한 同社는 전용 전력 변전소를 건설을 제안한 상태며, 그 외 3개의 새로운 전력 발전소가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음
- 엔지니어와 고급 관리자 급의 인재 부족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비하여 인텔은 관리자급 직원들을 미리 채용하여 아시아의 다른 공장에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하고, 베트남 대학에서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맞춤형 인재를 공급할 계획. 이와 더불어, 미국 대학의 베트남 현지 기술관련 분교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 중
- 베트남 공장은 초기에는 제조 분야에만 국한되어 운영될 계획이지만 2011년 경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연구 개발 분야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

□ 실리콘밸리 기업들, 베트남 투자에 관심 증대 (2007. 8)

-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 벤처 투자자, 과학자들이 베트남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회의가 Palo Alto에서 최초로 개최됨
- 8천4백만 인구의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2006년 8.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2007년에도 8% 대의 성장세가 예상됨
- 회의 주최자인 베트남 투자 전략 네트워크 대표 Huy Do는 “아시아지역

투자 대상으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

- 2006년 베트남은 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거대 하이테크기업 인텔은 베트남 투자액을 3배가량 늘려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올해에도 세계적 전자 제조사인 타이완의 Hon Hai 그룹이 베트남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VI. 일반 현황

1

국가개요

□ 국가개요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수도 : Hanoi
- 인구 : 8,410만 명 (2006년 추정)
- 면적 : 329,560km²(한반도의 1.5배)
- 종교 : 불교(60%), 카톨릭(20%), 기독교(5%), 까오다이교(2.5%), 호아호아교(2.5%)
- 언어 : 베트남어 (공용어)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제 (실질적 1당 체제)
- 주요 인사
 - 국가주석 : Tran Duc Luong
 - 총 리 : Phan Van Khai
 - 당서기장 : Nong Duc Manh

※ 자료 : 외교통상부

경제 지표 (2006년 기준)

- GDP : US\$ 609억
- 1인당 GDP : US\$ 724
- 경제성장률 : 8.2%
- 화폐단위: Dong(D)
- 환율 : US\$ 1 = 16,000 Dong
- 교역규모 : US\$ 840.2억
 - 수출 : US\$ 396.1억
 - 수입 : US\$ 444.1억
- 외환보유액(2005) : US\$ 73.9억
- 총외채(2005) : 약 US\$ 202억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양국 간 협력 관계

- 외교관계

- 수교일자 : 1992.12.22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설치
- ※ 1993.11.19 주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체결협정

- 경제, 기술협력 협정('93.2)
- 무역협정,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93.5)
- 이중과세방지협정('94.5), 세관협력협정('95.3), 해운협정('95.4)
- 투자보장협정 개정('03.9, 서울)
-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범공조조약('03.9)
- 에너지 및 자원협력 MOU('04.10)
- 베트남 원전인력훈련 MOU('05.4)
- 무상원조·기술협력협정('05)

○ 대 베트남 교역규모('06)

- 수출 : US\$ 39.3억
- 수입 : US\$ 9.2억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석유류, 수송기계, 석유화학
- 수입 : 농림수산물, 석유류, 잡화

○ 투자교류

- 對 베트남 한국의 투자누계 : 1,263건 US\$ 78억('06.12)
- 대만(81.1억불), 싱가포르(80.7억불) 다음의 제 3위의 투자국

○ 교민 : 16,576 명